

이웃의 어려움을 내 몸같이 살피

즐기는 2010 행복 나누기

○...대연4동청년회(회장 김홍섭)는 지난 4일 관내 독거노인세대의 내부 도배, 장판교체 및 대형소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대연4동 청년회 독거노인 집 고쳐주기.

○...용호1동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김만수)는 지난 10일 을숙도기념탑광장에서 관내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 자녀 20여명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함께 열기구 조작과 비행시뮬레이션 조종하는 항공문화 체험기회를 가지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용호1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체험학습.

○...용호2동 청년회(회장 윤영석)는 지난

16일 방역봉사활동 중 큰 부상을 입고 입원 중인 새마을지도자 회장을 돕기 위한 자선 일일 호프 행사를 열었다. 이날 수익금은 가족들에게 전달돼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용호4동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박종규)는 지난달 22일 부양가족 없이 홀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 100명을 초청, 오류도교회에서 점심을 대접하고 위문공연을 실시했다.



용호4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점심 대접.

○...용당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안호정)는 지난달 28일 회관근로 참여자 34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감만2동에서는 지난달 5일 (주)한국허치슨터미널(사장 최원종)자원봉사단(단장 한상호)의 집수리 봉사 활동이 펼쳐졌다. 봉사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를 찾아 도배와 장판 공사를 해주며 따뜻한 사랑을 나눴다. 보은정사(주지 재승스님)는 지난 4월부터 홀로 노인결연후원으로 매달 3세대에 5만원씩 15만 원을 기부하고 있다. 이웃사랑실천모임(회장 류제철)은 매월 10세대에 100만원을 (주)세방노동조합(지부장 신동섭)은 매달 8세대에 40

만원의 기부금을 내놓으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우암2동 라인정형외과(대표 박현수)는 지난달 16일 쌀 20kg 20포 등을 관내 저소득 주민 20세대에게 이웃돕기 성품으로 각 1포씩 전달했다.

○...문현1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장경분)는 지난달 23일 독거노인 50여명을 관내 식당으로 초대,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열고 어르신들에게 여름이불을 선물했다.

○...문현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정영미)는 지난달 16일 관내 거주 홀로어르신 10분의 가정에서 직접 방문하여 생신상을 차려드렸다. 이날 부녀회원들은 하루 전부터 직접 장만한 음식을 대접하고, 여름 이불 등을 선물로 전달했다.



문현2동 새마을부녀회 생신상 차려드리기.

○...문현3동 문현장학회(회장 이종현)는 지난달 30일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초청인사, 단체인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정기총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관내 고교생 10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5백만원의 장학금 등을 전달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문현4동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이상화)는 지난달 27일 관내 홀로어르신 30분을 초청하여 무료로 목욕을 시켜드리고, 점심식사

등을 대접하여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문현4동 바르게살기위원회 목욕봉사 활동.

○...부산은행 희망나눔재단은 지난 15일 구청장실에서 사랑의 선봉기 전달식을 갖고 관내 저소득층 330세대에 1대씩 전달해 달라며 1천9백만원 상당의 선봉기 330대를 기탁했다. 재단은 2008년도부터 구에 재래시장상품권과 선봉기, 쌀과 김치 등을 보내왔으며 올 2월에도 온누리상품권 200매를 보내오는 등 지금까지 약 9천만원 상당의 성·금품을 지원해 오고 있다.



부산은행 희망나눔재단 선봉기 전달.

○...남구미용업자협회(지회장 전지인)는 지난 13일 남구청에인복지관에서 미용 무료봉사의 날 행사를 가지고 관내 독거노인과 장애우 등 불우이웃의 미용을 무료로 제공했다.

아이들의 미래를 밝힌다

감만동 희망 '비전 청소년 공부방' 개소

감만1동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됐다. 동량초등학교 부근 육교 옆에 위치한 비전 청소년 공부방(관장 이은화)이 지난 6월16일 문을 열었다. 총 80평 규모의 공부방에는 남녀 열람실, 정보검색실, 도서실, 상담실 등이 잘 갖춰져 있다. 이곳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주로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운영프로그램은 독서는술교실, 토요일나루학교(영어, 논술, 영재), 독서캠프, 리더쉽학교, 문화탐방 등이 있다.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학부모 독서지도사 과정을 운영, 4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기도 했다.

학습지도는 재정적인 문제와 더

불어 교사수급 관제로 아직 힘든 상태라고. 지역 아동센터와 학교, 복지관과의 네트워크 형식으로 보다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의 희망은 청소년들의 품성을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독서를 통해 정직, 책임감, 자립심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한다. 도서관에는 현재 7천여 권의 책이 갖춰져 있다. 신간 등 책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초등 담당 교사수급을 위해 대학생이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4학년 여름방학 전부터 이용했다는 김보성 어린이(동향초·6)는 두뇌개발 영재학습이 가

장 재미있으며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바로 이곳으로 달려온다.

8월12일부터 14일까지 독서캠프가 열릴 예정이다. 감만동 소재 100명 정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선행독서로 "반기문 총장님처럼 되고 싶어요."를 지칭하고 하루저녁을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전 청소년 공부방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문을 연다. 공휴일·일요일은 휴무. ☎642-1304

한정미 기자



이은화 관장이 '비전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월세방 철거로 실의에 빠진 조손가정

동 단체인 힘모아 보금자리 마련해줘

살던 집이 철거되면서 살길이 막막하던 조손가정을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아 거처를 마련해줘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대연5동 주민센터에서 복지도우미로 근무하고 있는 권모(20)씨는 얼마 전 지매를 잃고 있는 할머니(77)와 함께 살고 있던 월세방이 도로개설공사로 철거되면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왔게 됐다. 이 같은 권씨의 딱한 사정은 통장협의회와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주민단체원들에게 알려졌고 실의에 빠진 권씨를 돕기 위해 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이귀성 10동 통장은 2년동안 공개 상태로 있던 방 2개 딸린 집을 어렵게 알선해 줬으며 통장협의회(회장 조영환)는 50만원 상당의 썬크대를 구입해 설치해줬다. 대연5동 통장 전원은 고지대까지 이웃집을 옮기며



구슬땀을 흘렸다.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배은국)는 지난 12일 자체기금 40만원으로 도배지와 장판을 구입, 낡은 벽지와 장판을 걷어내고 도배와 청소를 깨끗이 해줬다. 동직원들도 중고가구를 구매 전달했다. 조영복 회장은 "동 단체원들과 직원이 합심해 자칫 절망에 빠질 수 있는 한 가정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한 실천 사례로 귀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비 무료 재직자 교육				
▶고용보험 가입자▶				
과정명	개강일	교육기간	교육시간	정원
역설 고급과정	7월 17일 (주말)	7.17~8.28	9:00~13:00	20명
역설 고급과정	7월 24일 (주말)	7.24~9.04	14:00~18:00	20명
틀다지인 (포토샵)	8월 20일 (월, 수, 금)	8.20~9.29	19:00~22:00	10명
OA과정	9월 14일 (화, 목)	9.14~11.16	19:00~22:00	10명

●선착순 마감
●비정규직 90%~100% 환급
●정규직 80% 환급
●능력개발카드 수업가능

순수 방송대비 **차적증** 특강 순수
컴활1급, 컴활2급, 워드1급, 정보처리기사
2011년부터 워드1급, 컴활2급이상 자격증가산 인정

국비 실업자(거좌제) 교육

▶대학졸업자 및 일반 실업자, 주부 환영▶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과정명	개강일	교육기간	교육시간	정원	분리 부설금	장부 지원금
OA과정	7월 21일 (주말)	7.21~9.02	09:00~12:00	10명	8만원	32만원
OA과정	7월 26일 (월요일)	7.26~9.07	14:30~17:30	10명	8만원	32만원

- 각반 선착순 10명 접수마감
- 훈련 기간 중 교통비(자급(50,000원))
- 대상: 실업자-거좌제카드소지자
- (실직자, 주부, 대학졸업후 청년실업자)
- 수료후 취업추진 적극 지원

노동부 지정 (LG 메트로 맞은편 우리은행 4층)

천일컴퓨터학원 (www.chonil.com)

☎621-2169, 622-2360 (용문중학교 하차)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인감보호 신청이란

인감소와 예방을 위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도장을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의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요청하시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임

■ 신청기간 : '10. 07. 12~'10. 10(3개월간)

■ 신청대상

-인감보호 신청을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모든 인감 신고인

-기 신고자중 『본인의 발급금지』에 대한 신청만 되어 있어 유사시 본인의 인감발급 곤란에 대비 자신의 권리를 대리할 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등

■ 신청장소 : 구(민원여권과) 및 각 동 주민센터

2010년 정기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조사

□ 조사기간 : 2010. 7. 12~7. 31

□ 조사대상 : 각종 바닥면적(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의 시설물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 소유시 각각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 ≒ 100㎡미만 소유시는 지방세시가표준액 1억원이상인 경우 부과)

□ 조사방법 : 조사원 현지방문 실태조사

□ 조사내용 : 시설물 증·개축사항, 면적 및 사용용도 등

□ 부과기준일 및 납기

-부과기준일 : 2010. 7. 31

-납기 : 2010. 10. 16~10. 31. (전자납부 가능)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개정조로 납기가 9월에서 10월로 변경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점심섬김'

대연제일교회 방학기간 식당 무료 개방

방학을 맞은 초·중·고교생들의 점심을 책임지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있어 미담이 되고 있다.

대연2동 대연제일교회(담임목사 최호득)는 지난 19일부터 방학을 맞은 청소년을 위한 '점심섬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회 식당에서 월~토요일까지 계속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찾아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 운영을 위해 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아 봉사단을 조직해 아이들의 점심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학교 영양사 출신 성도가 식단을 손수 마련해서 인지 이용 청소년들로부터 최고의 음식 맛이라는 찬사를 듣고 있다.

교회에 점심섬김에 나서게 된 것은 방학 동안 학교 급식이 이뤄지지 않아 자칫 점심을 거르지 못한 아이들이 부부 가정 등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살피기 위해 한 것으로 소요 경비는 모두 교회에서 부담하고 있다.

교회는 또 교육양극화를 해소

하고 올바른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과 연계해 이곳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공부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교회는 학업과 점심을 동시에 해결해 줌으로써 아이들의 탈선을 예방하고 건강을 살피는 사회적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것이다. 점심섬김은 내달 20일까지 매주

월~토요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계속 운영된다. 교회 측에서는 학생들이 원할 경우 가정에서 직접 찾아 식당까지 안내도 해주

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교회 관계자는 "방학 기간 점심을 거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 교회에서 '점심섬김'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청소년들의 점심 문제 해결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언제든지 교회를 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 ☎642-0716



척민식의 진실+삶 이야기

어린이 사진의 핵심은 한마디로 '자연스러운 어린이'의 사진적인 표현에 있다.

비연출로 생생한 순간을 포착해야 실감을 나타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 찍을 것인가이다. 훌륭한 어린이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냅샷의 명수가 되어야 한다. 그 훈련이 필수적이다.

(대연1동·휴머니스트사진작가)

주민 힘모아 도서관 만들었다

용호3동 삼지도서관 이전 개관



용호3동 삼지도서관 이전 개관식이 지난날 30일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민들이 힘을 모아 협소한 도서관을 증축, 이전해 귀감이 되고 있다.

용호3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원용)는 지난달 30일 용호3동 주민센터 3층에서 삼지도서관 개관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철 구청장과 각급단체장,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그동안 동주민센터 1층에 설치된 용호3동 삼지도서관은 공간이 협소해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 각급단체는 주거지주차장특별기금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2천만원의 기금을 마련, 주민센터 3층을 증축해 삼지도서관을 이전 개소하게 된 것이다.

박원용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이 심심일만 힘을 모아 도서관을 현대식으로 꾸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많은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당부했다.

33㎡ 규모의 도서관은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400여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도서관 가운데는 20명이 동시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열람테이블도 마련돼 있다.

자원봉사자 2명이 오전·오후 교대로 봉사하며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

지 09:30~17:00까지이며, 1인 2권씩 1주일간 대여도 해주며 1주일

연장도 가능하다. 조상영 기자

남구오륙도여성합창단원을 8월9일까지 모집합니다. ☎ 607-4064